

# 자동살수·물안개 시설로 '광프리카' 탈출

### 광주시 36억 들여 설치...수영대회 대비 폭염저감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100곳 옥상 열 차단 장치

올여름 도심 속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광주시가 도로에 물을 뿌리고, 물안개를 뿌어 낼 계획이다.

지난해 여름, 사상 최악의 무더위를 기록하면서 아프리카와 광주의 합성어인 '광프리카'라는 신조를 낳은 광주 도심 폭염을 줄일 수 있도록 도로 자동 살수 시스템과 물안개를 만드는 시설 등이 설치된다.

7일 광주시는 "이상 기후로 여름철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36억원을 들여 무더위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도심에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전남 여름철 폭염일수는

26일, 열대야일수는 25.7일을 기록했다. 여름철 광주·전남 평균·최고기온은 최고 1위,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최다 1위를 기록했고 특히 8월 15일에는 광주의 일최고기온이 38.5도였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지난 10년간 평균기온은 0.18도 상승했다. 특히 여름철에 열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 12일~28일)에 대비해 광주의 주요 관문에 폭염 저감시설이 집중 설치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올해 36억원을 들여 ▲클린로드(도로 자동살수 시스템) ▲쿨페이브먼트(열 포장, 열 차단 보도블럭) ▲쿨루프(옥상 열 차단 포장)

▲쿨링포그(물 안개 분무) 시설 등을 설치한다.

수영대회 주요 관문인 광주공항-송정역(3km)에 설치되는 클린로드는 지하철 인 근에서 버려지는 물을 재활용하게 되며 도로 노면의 온도를 15도 가량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겨울철엔 염분을 뿌려 제설과 결빙방지 효과를 내고,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도로에 특수도료를 입히는 쿨페이브먼트는 태양열을 반사해 노면의 온도를 10도 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다.

광주시는 현재 도심 열섬지도를 활용해 도로와 광장 등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다.

옥상의 열을 차단하는 쿨루프는 실내 온도를 3~4도 가량 줄일 수 있으며, 경로당

등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100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난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선을 보였던 물안개 분사 시스템인 콜링포그는 물안개로 주변 열을 식혀 2~5도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

대구 김광석길, 수원역 버스정류장, 전주 중앙시장 등에 설치돼 있으며, 광주지역 버스정류장과 공원길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 10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시 재난대응과 김성학 과장은 "여름철 폭염이 일상이 되고 있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등 다양한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의회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주목

### 11일 임시회서 심의

광주시의회는 7일 "장연주·김광관·신수정·정무장·최영환 의원 공동발의로 광주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안)을 11일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은 41년 전인 1978년부터로, 광주시는 1986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활동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조례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로 재원을 마련해 왔다.

지난해 기준 지급된 장학금은 1인당 약 163만원으로, 특정단체 자녀들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투입해 장학금을 지급

하는 것은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새마을 장학금 폐지 시정회'를 결성해 조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앞서 시민단체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지급된 새마을장학금 수혜자 572명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2회 수혜자가 78명이고 내리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은 자녀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새마을장학금이 특정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업 폐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올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KTX 서울역사서

### 광주수영대회 홍보

#### 11일 마스크트 조형물 제작식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D-150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대형 마스크트 조형물이 세워진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와 광주시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크트인 '수리'와 '달이'의 대형 조형물 제작식을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고속철도(KTX) 서울역사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7일(현지시간) 인도 콜카타시 비스와방글라칸벤션센터에서 열린 벵갈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Bengal Global Business Summit 2019) 개막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의 지자체와 기업 관계자 4000여명이 참석해 경제교류와 투자정보를 공유했다.

## 전남도 동남아 수출 시장 다변화 교두보 확보

### 김영록 지사 인도 방문 6000만달러 규모 수출입 협약 체결

전남도는 인도를 방문중인 김영록 전남 지사가 웨스트벵갈주와 6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입 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중국 등 동아시아를 넘어 신남방 지역 교류 및 수출시장 다변화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현지에서 인도상공회의소와 화학·비료·조선·농수산물 분야 5000만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협약(MOU)을 맺었다.

또 전남기업인 현대엔테크와 인도 티타거 그룹 간 1000만 달러 규모의 선박용

대합 계획이다.

김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인도 웨스트벵갈주가 주최한 대규모 경제·무역 박람회인 '벵갈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Bengal Global Business Summit)'에 참석해 축사했다. 그는 축사에서 "조선·화학 등 주력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마마타 바너지(Mamata Banerjee) 웨스트벵갈주 총리와 두 지역의 경제·문화 분야 등의 지속적 교류 확대를 약속하는 '전남도-웨스트벵갈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형 일자리 기업발굴·컨설팅 사업 수행기관 공모

### 12~15일 신청 접수

### 선정기업 행·재정적 인센티브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지역 내 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기업발굴 및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은 광주형일자리 기업공모 및 인증지표 평가를 통한 기업 발굴, 광주형일자리 기업육성을 위한 예비 창업기업 인증기준 컨설팅 등을 맡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법인인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컨설팅 사업과 관련해 지역

내 노동계, 경영계 등과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기관 등이다.

신청서는 12일부터 15일까지 일자리 정책관실(613-3831)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3월 중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화청 관계 개선 등 4대 지표를 평가해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한 14개 기업을 심사한 결과 매일유업(주) 광주공장, 현대제과식품(주) 광주공장 등 2개 업체가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군공항 이전 홍보지원단 운영

### 홈피·TV광고 활용 정보 제공

광주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군공항 이전 홍보종합계획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7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홍보지원단을 운영해 단계별 홍보 방향 등 전략적 홍보를 하고, 군공항이전사업 홈페이지, SNS, 시 전광판, TV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광주·전남 지역 들에게 공청하고 균형잡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면 군공

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사·도가 적극 협력하기로 발표했다.

또 국방부는 광주시의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협조 요청을 받고 영암, 무안, 신안, 해남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도민에게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뉴스를 바로잡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힘쓰겠다"며 "한 뿌리인 광주·전남 지역의 소모적인 갈등을 예방하면서 상생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선로 걱정없는

# 선착순

# 엘리형 태양발전소 분양

##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 년 40% 수익 기대

##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 최단 2년 6개월 가능

## 계약금 1천만원

#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